

# 여성성(Womanhood)과 돌봄(Caring)에 관한 연구

최영희\* · 변영순\* · 김남선\*\*

## 목 차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II. 간호사 및 정신성적(gender) 시각에서 본 돌봄
  - A. 간호의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돌봄
  - B. 정신성적(gender) 시각에서 본 돌봄
- III. 결론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돌봄(Caring)은 간호의 본질이며 타 학문과 구별되는 간호의 고유영역이다(Watson, 1988, Leininger, 1978). 돌봄은 인류 역사를 통해 표현되어 왔으며 Heidegger(1962)는 돌봄을 인간실존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Reverby(1987)는 돌봄이 야말로 변화와 폭력, 전쟁이 난무하는 갈등스러운 이 세계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생존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렇듯 돌봄이란 보편적인 인간현상으로서 그 표현이나 활동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건화되고 보상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체제내에서 여성인 간호사가 수행하는 돌봄은 남성인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치료(Cure)에 비해 사회에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치료(Cure)-의사, 돌봄(Care)-간호사라고 단정지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의료 전문직에는 돌봄(Care)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3/4이

돌봄(Care)이며 1/4정도만이 치료(Cure)라는 Leininger(1984)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가치는 간과되고 있다. 이는 간호사에 의한 돌봄 내용뿐 아니라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성 고정관념 때문에 권력, 권위, 및 위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업무의 자율성(autonomy)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pinch, 1981).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 역할로 고정관념화된 여성전문직은 도와주는 역할과 양육 및 편안하게 보살펴야 하는 보조적인 역할과 관련이 되어있다. 간호 역사가인 Doke와 Nutting(1935)은 간호가 가장 오래된 여성직업이며, 이는 어머니의 역할로 부터 출발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돌봄의 역사적 전통은 돌봄을 의무나 헌신, 자기희생과 연관시켰으며(Benner, 1989), 사회적 인정이나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과 헌신에 기초한 노동"의 차원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므로 돌봄의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의 규명을 통해 그 해결책이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여성성(Womanhood)과 돌봄과의 관계를 간호역사적 측면과 정신성적 연구(gender studies)의 측면에서의 탐색적 연구를 하여 간호의 본질인 돌봄의 규명과 발전 전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체제에서의 치료와 돌봄간에 존재하는 상대적 우월성의 문제나 성차별주의의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함께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화여대간호대학 교수

\*\*영동간호전문대학 교수

##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간호의 역사적 관점과 정신성적 연구(gender studies)에 관한 문헌을 통하여 여성성과 돌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정신성적 연구란 성역학과 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된 것임을 밝힌다. 여성학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삶이 사회조직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시각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었다

## II. 간호사 및 정신성적 시각에서 본 돌봄

### A. 간호의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돌봄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돌봄행위는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음을 민속과학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ininger(1984)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치료적 역할의 수행에 관여하는데 반해, 여성은 돌봄에 깊이 관여되어 여성성이나 모성의 속성과 일치하는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 Dock와 Nutting(1935)도 돌봄이 인간 생존의 원리이며 돌봄은 여성에 의해 자손에게 전수되어 왔다고 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의 민간돌봄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최 1990)에서도 인간의 生, 老, 病, 死의 전 과정을 통해 인간생존의 원리가 돌봄이었으며, 특히 노인돌봄행위를 중심으로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서(최 1991) 한국 노인을 돌보는 현상은 문화규칙(rule)으로 학습 되어온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확인은 화석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돌봄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으며 역사이후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돌봄에 대한 민담이나 문학적,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Ray, (1978), 최 1991). 전문적인 돌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여성이나 어머니에 의해 돌보아지던 돌봄이 점차 확대되어 종교적인 믿음과 생활에 의해 실천되었다. 즉 불교인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으로서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진리를 실천하는 보리심에 근거하여 보살핌을 행하였고, 유교인은 仁의 실현 과정으로서(최영희외, 1990), 기독교

인들은 신의 명령이나 특별한 부름에 의해 가난하고 병들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Gustafson, 1984).

이와같이 종교에 근거한 돌봄은 자비, 헌신, 사랑 및 미덕을 발휘하였으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서구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돌봄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까지 계속 되었다. 중세절서가 깨어지자 실증주의라는 새로운 남성중심적 세계관이 도래되어 신의 섭리 대신 '자연의 법칙'을 종교적인 설명 대신 '객관적인 실명'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세계의 사도로서 지식생성을 특집해 왔으며, 남성 자신의 경험에 많은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집단 구성원들 즉 여성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일축시켜왔다. 즉 남성 중심적 세계관은 여성의 역할이나 삶과 관련된 영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Rousseau, Kant, Schopenhauer, Guld등이 여성은 천성적으로 연민과 동정을 가진 존재로 이를 바탕으로 돌보는 것이 여성의 특징이라고 규정된것은 자신들은 남성으로서 전혀 여성의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고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중상류 계층 여성들은 친구나 친지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간호는 여성에게서 여성으로 옮겨지는 일종의 도제(female apprenticeship)의 일부로서 어머니가 딸에게 교육시키거나 하인들에게 부가적인 업무로 요구되었다. 한국인의 민간돌봄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물론 친척과 이웃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1991). 19세기 서구사회에서의 돌봄은 여성의 본성에 의해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이는 여성자신의 여성감성(female sense)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Graham, 1983). 그러므로 간호는 여성의 여성성을 나타내거나 의무일뿐 여성의 직업으로 행해지는 현상이 아니었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의 일은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에 따라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의 노동은 경제적 생산수단으로 인정되어 계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즉 여성은

지불되는 노동과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겹치게 되었다. 간호의 경우도 전문 직업화되기 이전에는 미망인이나 하류계층의 여성이 계약에 의해 남을 돌보았으며, 이런 일(work)로서의 돌봄은 사랑과 헌신, 봉사와는 분리를 가져 올 수 있었다.

미국 간호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시점은 1870년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873년 뉴욕, 보스턴, 뉴헤븐에 있는 병원에서 영국의 성토마스 병원의 나이팅게일 학교를 본받아 간호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한 간호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Nightingale이 간호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이 있다. 크레미아 전쟁때 Nightingale의 활약은 미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딸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하였기 때문이다. Nightingale은 “간호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병원에서 간호훈련(Training for Nursing)을 위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Nightingale은 의사들의 치료에 대해 신뢰를 가졌으나, 좋은 간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치유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간호가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일보다 여성에게 더 유용하고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간호란 사회적 미를 위해 여성의 타고난 재능과 과학적 원리를 잘 조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inch(1981)는 Nightingale의 부종파주의가 간호에 자율성(autonomy)의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하였다. Reverby(1987)도 Nightingale이 여성과 남성의 환동영역이 엄연히 구분되던 시대에 간호사는 여성의 미덕에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훈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의 간호가 Nightingal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O'Brien, 1987).

그러나 O'Brien(1987)의 Nightingale에 대한 비판은 사람들에게 돈이나 휴식에 대한 바램이나 욕구가 없는 자기희생적인 여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Nightingale은 암흑기로부터 간호를 이끌어낸 용기있고 자유를 향유하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며 그는 제자들에게 “희생”이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 시대의 다른 여성운동가들과는 달리 권리(right)

가 아닌 의무(du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간호를 표현했는데 이는 소명감에서 출발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Nightingale은 간호를 여성화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성(gender)이 아닌 사회계층의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했다. 가정내의 선한 미덕을 갖춘 여성으로 부터 소명감을 가진 간호사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리고 간호의 정치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Nightingale은 간호지시(Nursing order)가 상위의 간호감독자로 부터 하위의 간호훈련생에 이르기 까지 잘 전달되도록 여성계층(female hierarchy)을 조직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중심의 간호영역은 남성우위 영역인 의학과 보건의료로부터 힘을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Nightingale의 간호와 여성성(womanhood)에 대한 신념은 1990년까지 미국간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까지 간호개혁자들의 노력으로 간호학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훈련된 간호사 수는 1920년대에는 인구 10만명당 141명으로 상승되었다(1890년대 : 인구 10만명당 16명) 그러나 병원간호 업무나 간호학교 훈련사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알고 점차, 의사나 병원경영자들은 병원에 간호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간호를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간호사가 간호훈련을 마쳤어도 병원은 간호학생들이나 훈련안된 보조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경영상 정식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즉 간호교육의 특성이 훈육이나 지시, 실제적 기술(skills)습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노동력의 남용이 정당화되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여성들로 구성된 노동력에 대해 복종과 희생과 이타주의를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간호사라는 명칭은 애매모호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의 발발은 대중들에게 간호사들을 도덕적 표상으로서 자비의 천사(Angel of Mercy)로 끌어올리게 하였고 이 시기에 간호사들은 명예스럽고, 도덕적이며, 자기희생적으로 비쳐지게 되었다(kalish and kalisch, 1981). 간호사들은 간호를 함으로써 의미를 찾고 성공을 추구하는 한편, 사랑과 결혼을 통한 행복이라는 이분적 사고 사이에서 혼동과 방황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

매경하에서 간호의 자율성은 이타주의와 통합되지 못 하였다. 또한 간호는 재정적 능력과 문화적 힘(cultural forces)이 없었으므로 여성의 개혁과 권리옹호에 기초가 될 독립적인 여성제도로도 조직화되지 못 하였다. 간호사들은 이때야 비로소 간호가 의무의 여성文化라는 측면에서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미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문화구조와 신념에 의해 고정화된 사회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간호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적인 물질적 기반에 깊이 연루되어왔다.

1919년에 여성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가 개혁되면서 점차 일반 여성들은 전문적인 활동이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는 1차대전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간호교육제도의 절은 낮아져 부상당한 전역 군인들을 위로하는 위치 정도에 머물렀다. 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다시 간호는 1940년대 중반까지 가치있고 중요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으며 적십자 활동을 포함한 군간호사의 활동은 용기있고 위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전쟁이 발발하는 시기에 간호의 가치는 보다 높이 평가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묘사되었으나 전후의 사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을 더이상 지지하지 않았다(kalish, 1981). 그러나 전쟁이 없는 시대에도 간호는 부단히 대중에게 친절한 돌봄(care)을 제공하였으며 교육혁신과 사회적 전망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성성에 근거한 전통적인 의무의식은 간호사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좌절시켰으며 내부적으로는 간호사들 스스로 돌봄을 순종이나 자기희생과 같은 여성미덕의 구체적 표현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견해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Reverby, 1987).

결국 간호돌봄의 전통은 모성적 속성이나 이타주의, 종교적 도의성, 군대적 권위주의와 같은 철학적, 역사적 전통을 통해 삭감되고 제한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 B. 정신성적(gender)연구 시각에서 본 여성과 돌봄

여성은 오랜 역사를 통해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을 넘어선, 소위 공적 영역 활동에서 제외되어왔다(de Beauvoir, 1964 : Rosaldo, 1974). 비교문화적 자료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1)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2)여성은 높은 사회적 권위를 지닌 직분에서 배제되었고 3)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제반 장치가 존재해 왔음을 알게된다(조, 1988).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의례적으로(ritually) 부정하거나 불결한 존재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여성의 월경(Menstruation)과 관계가 깊어서 월경은 불결하고 오염된 것으로 보고 월경중인 여성은 성스러운 神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게하였다.

여성의 노동력과 출산력은 공적 조직(진족, 국가등)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왔으며 여성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과는 별개의 남성적 지배이념을 수용해야했고 남성들이 만들어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여야 했다(조, 1988). 이렇게 볼때 병원 환경은 가부장권(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을 조장해 왔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돌봄은 단순히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의 지속이라고 생각해 왔고 가정과 가족을 위한 책임을 갖는 여성의 모성적 기능은 여성억압의 근원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성은 여성의 지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에 있어 대부분의 병원이 팀접근을 중요시하며 바람직한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상(ideal)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도 직종간의 관계가 가족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불평등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체제에 있어 성 차별주의의(sexism)는 그 사회에서의 성 차별주의의 절대적인 반향(reflection)이다. 즉 대부분의 간호사들의 딜레마는 현실적으로 일반 여성들의 문제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띤다.

돌봄(Care)과 치료(Cure)는 구분되기는 하나 둘다 대상자들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사회에서는 양자에 대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

지 않고 있다. 돌봄은 지유(healing)를 촉진하므로 치료(Curing)에 기여하게된다. 그러나 의학측면에서는 돌봄(Care)과 치료(Cure)를 분리하여 치료의 하위 부분으로서 돌봄(Care)을 격하시켜 질과적으로 돌봄을 행하는 간호사(여성)의 위치를 의사(남성)들이 결정 지었다(Leininger, 1984).

언어학적으로 “여자”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기호이다. 그 언어가 갖게되는 의미가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가 부여한 것이며, 그 뜻은 관습이나 습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여자”라는 말은 생물학적이 아닌 단지 기호인 것이다(Ruthven, 1984).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대한 전형(stereotype)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전형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하여 남성과 여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가령, 수행능력이 높은 여성은 단지 운이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수행능력이 낮은 남성은 실제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특성은 거의 없다고 제안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Deaux, 1976)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며, 성에 따라 활동을 규정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규정을 양성간의 생리적인 차이나 생식 역할로 합리화하려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분리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귀속은 거의 전적으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Linton, 1963).

Leininger(1984)는 여러 문화에서 돌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1) 여자, 간호사, 어머니의 역할은 동시에 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사회에서 인지되고 있다.

2) 병원가족(Hospital Family)은 어머니(간호사), 아버지(의사), 그리고 자식(환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가부장적 체계의 방법이다.

3) 간호의 종속적 위치는 남성-의학의 역할인 치료(curing)보다 전통적인 여성-간호역할인 돌봄(caring)에 가치를 보다 적게 두는 돌봄-치료(care/cure)의 신화 때문에 더욱 고정화된다.

4) 이러한 이분법은 경제적 보상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의사는 치료(Curing) 때문에 일에 대한 경제적 가치부여가 많고 간호사는 돌봄(Curing)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성 차별이나 여성억압의 뿌리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학문에 있어서도 남성우위와 여성소외는 심각한 것같다. 가령 도덕발달을 포함하는 발달심리학자들은 성숙한 성인모델을 들 때는 남자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Gillingan(1977)은 Freud나 Piaget, Erickson, Collberg등이 남성의 눈으로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지각해 왔는지를 인식하려 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사람(man), 인류(mankind), 그(he)와 같은 일반적 용어의 사용은 사실상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인간(human nature)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Aristoteles, Aquinas, Rock, Rousseau등이 기술하는 인간(human nature)이란 단지 남성(male human nature)만을 의미한다(Pinch, 1981) 가족을 자연적, 필수적 제도(institution)로 간주한 이들 철학자들은 여성을 가족내 성적기능, 생식기능, 자녀양육기능에 제한시켜 놓았으며, 이는 남·녀간의 권리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도덕규범의 차이를 만들어냈다(Pinch, 1981). 여성은 그러한 사고의 산물인 희생자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간호사가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질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관에 충성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며, 집안의 여러 일을 처리하듯이 갖은 일들을 하며,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의사에 따르듯이,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인식되고 강요되었음이 명백하다.

흔히, 여성해방은 사회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Croi(1980)은 특히 중국이야말로 남녀평등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인류학자 Wolf(1985)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감시와 통제라는 자우롭지 못 한 난관을

뚫고 실시한 중국 현지조사의 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중국의 혁명지도자들이 비록 가부장제로 말미암아 생긴 여성과 젊은 세대의 억압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그들 스스로가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에 무의식적으로 묶여 있었으며, 그에 따른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연된 혁명(Revolution postponed)”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주의 혁명도 여성을 위해 충분히 혁명적이지는 않았다(Firestone, 1980)는 것이다.

여성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Keniston, 1954)는 사실이다. 돌봄의 간호역사에 있어서도 간호사들은 의사나 병원경영자등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와도 투쟁해야했지만 내부적으로 돌봄을 여성화하는데 찬성하는 간호사들 때문에도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그렇지 않은 논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신화를 그대로 믿고 유지하려는 것일까? 확실히 양성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성역할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보편성 논리에 입각한 본질론을 깨는 고전적 일레가 여성 인류학자, Meed(1935)에 의해 밝혀졌다. Meed는 아라페시, 문드구머, 첼블리 세 부족에 대한 연구에서 아라페시족은 남녀가 다같이 온순하고 정서적이므로 출산외에는 성차가 없으며, 부부가 함께 생산에 참여하며, 식량확보, 육아, 가족의 안녕이 부부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서로 협조적이다. 문드구머족은 남녀가 다 같이 난폭하고 공격적이며, 사냥에 가치를 둔 잔인한 부족이다. 이는 부제도 모계도 아닌 사회로써 부부의 재산소유권이 각자 다른 성의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서로 경쟁하며 남녀 성차가 없다. 첼블리족은 여성이 주생산자가 되어, 남성은 의례적인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예술적 취향이 더 발달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편은 의존적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회는 남녀의 특징적 차이가 없는 사회이며, 다른 한 사회는 우리 문화의 성에 대한 태도와 정반대이므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본질론적 입장은 그 근거를 잃게된다.

그러므로 정신성적 연구(gender studies)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남녀는 각각 그들의 근본적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과 가치는 성(gender)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등에 의해서 인간이 같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charvet, 1982).

### III. 결론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가정으로 말미암아 간호사의 역할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분리해내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인간의 돌봄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솜씨나 상냥함,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부드러운 감정 표현등은 여성의 미덕이다. 이같은 속성은 대상자 돌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돌봄의 유형이며 간호사들 역시 이와같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한편으로는 간호사가 전문적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여성역할이나 성차별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돌봄담당자(caregiver)로서의 역할을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간호사의 이중부담이 있다.

역사와 사회화는 상황조성을 위해 조합되며 이는 간호사로 하여금 권리갈등의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이러한 딜레마는 전문적 역할 및 영역과 연관된 권력(power)의 갈등이다(Pinch, 1981) 의료체제내에서 간호(caring)와 치료(curing)의 분제, 성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자연적이고 기능적 분담의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권력구조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 하였다. 다시 말하면, 돌봄(Care)과 치료(Cure)의 관계는 어느 전문직에관 각각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두 요소가 각 전문직 역할에 모두 필요하며, 친밀한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그것을 대립적 집단간에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보기에 어려

움이 따랐던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간호 업무나 돌봄활동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기존의 문화적 가정(Cultural assumption)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발달이론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합함으로써 성인기의 확장된 개념화와 인간발달에 대한 더 균형잡힌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는 여성의 전문직이고 패미니즘은 여성운동이다. 돌봄의 가치가 역사적, 철학적 전통을 통해 어떻게 삭감되고 제한되어왔는가를 살펴볼 때, 여성성과 돌봄의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억압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숨겨져 있던 돌봄의 역사를 정신성적 연구의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소외와 강요로 점철된 간호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간호(Care)와 치료(Cure)의 조화로운 공존 및 권위와 힘(power)을 얻을 수 있는 방향 모색의 전환점을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성희, 조명옥, 최영희, 강신포,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관한 연구, 출생을 중심으로,  
대한 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미드 마가렛, 세 부족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조혜  
정역, 서울 ; 이대출판부 1988  
울프 마저리, 지연된 혁명, 문역보역, 서울 : 한울,  
1980  
정대현, 여성문제의 성격과 여성학, 한국여성학,  
1985, 제1집  
조육자, 가부장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1986 제2집  
조혜정,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남성다움과 여성다  
움, 현상과 인식, 1979, 3(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  
사, 1986  
최영희,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 간호대학 학술심  
포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1990  
최영희, 고성희, 조명옥, 문화간호학 연구(I) 서  
울 : 수문사, 1991  
Beauvoir, S, The Second sex, N.Y. : penguin, 1964

Benner, P, The primacy of caring, Menlo part :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989  
Deaus, K, The behavior of Women and Men, N,Y :  
Brooks Cole publishing Co, 1976  
Gilligan, C, Woman's place in man's life cycle, Bos-  
ton : Harvard Educ. Rev, 1979. 49. 432-448  
Grace L Delugherg, Image of Nursing, in Issues  
and Trends in Nursing, Mosby, 1991  
Graham, H, Caring : A labour of Love. In Finch  
and Groves(Ed), A Labour of Love. N.Y : pen-  
guin, 1976  
Gustafson, R, Motivational and Historical Aspects  
of Care and Nursing. In Leininger(Ed), Care :  
The Essence of Nursmg and Health. New Jer-  
sey : Charles B. Slack Inc., 1984  
Heidegger, M,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Rob-  
inson, L, NY : Harper & Row, 1962.  
Kalisch PA and Kalisch BJ The image of nurses in  
Novels Am, J Nurs, 1981 8.2(8) 1220-1224.  
Leininger, M,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 New Jersey : Slack Throfare, 1984  
Linton, R, The study of Man, N,Y : Appleton-  
Century Crofts, 1963  
Neil, R and Watts, Robin, Caring and Nursing, N.  
Y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1991  
Pinch, W, Feminine Attributes in a Masculine  
world, Nursing Outlook, 1981  
Rag, J, A philosophical Analysis of Caring within  
Nursing, In M. Leininger(Ed), Carmg. N.J :  
Charles B. Slack Inc. 1978  
Reverby S, A Caring Dilemma : Womanhood and  
Nurs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Nursing  
Research 1987, 30(1) 5-11  
Sheahan D, Influence of Occupational Sponsorship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Nursing,  
paper presentacl at the Rockefeller Archvies  
Conferences on the History of Nursing, 1981  
Cited from S. Reverby, A Caring Dilemma : N.R.  
1987